

보랏빛 선율과 가시 돋친 반전 - 자카란다와 실크 플로스의 단상

이건일 (68 년)

미국 중서부의 평원에서 보낸 수십 년의 세월은 내게 계절의 정직함과 인내를 가르쳐주었다.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과 지평선, 겨울이면 세상을 집어삼킬 듯 덮어버리는 무채색의 눈은 그 자체로 평화로웠지만, 때로는 시각적 허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곳에서 나고 자란 나무들은 강인하고 소박했다.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생명체들에게 화려한 꽃치장은 어쩌면 허식이었을지도 모른다.

단조로운 풍경 속에 홀로 서 있던 햇빛은 나무들을 보며, 나는 마음 한구석에 늘 이국적인 생명력에 대한 동경을 품고 살았다. 오하이오의 겨울이 인내와 침묵의 계절이었다면, 이곳 남가주로 터전을 옮긴 후 맞이하는 봄과 여름은 참아왔던 생명력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환희의 서곡과 같다. 추위를 피해 옮겨온 이 따뜻한 땅에서, 나는 이 나무들을 통해 비로소 '색(色)의 해방'을 맛본다.

자카란다(*Jacaranda mimosifolia*)를 처음 마주한 것은 포르투갈 리스본의 어느 봄날이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유명한 광장을 살짝 벗어나, 약간 뒤로 들어간 곳에 있는 비교적 한적한 도로를 걷고 있었다. 그때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꿈속의 한 장면 같았다. 하늘이 통째로 내려앉은 듯한 보랏빛 꽃무리가 가로수로 줄지어 서 있었던 것이다.

나는 홀린 듯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꽃들을 감상했다. 자잘한 보라색 꽃들이 나팔처럼 층층이 매달려 미풍에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그 은은하고 약한 향기는 코끝을 간지럽히며 여행자의 고단함을 씻어주었다.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꽃나무가 가로수라니!" 감탄이 절로 터져 나왔다.



수묵화를 그리는 예술가의 시선으로 볼 때, 자카란다의 만개는 마치 한지 위에 연한 보랏빛 먹물이 번져나가는 발묵(撥墨)의 절정처럼 보였다. 억지로 그려 넣은 색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붓이 스스로 길을 찾아 번져나간 듯한 자연스러움이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 모습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처럼 경쾌하고 우아한 선율을 허공에 그려내고 있었다. 비록 꽃잎이 떨어져 땅을 끈적하게 적시는 '아름다움의 이면'이 있을지언정, 그래서 정원수로서는 그리 환영 받지 못한 다는 사실이 있을지언정, 그 순간 리스본의 골목은 내게 지울 수 없는 보랏빛 낙인이 되었다.

리스본은 나에게 단순히 아름다운 도시 이상의 강렬하고도 서글픈 인상을 남겼다. 이 이베리아반도 끝자락의 작은 왕국은 한때 브라질이라는 거대한 식민지를 호령하며, 그곳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막대한 금과 은을 물 쓰듯 낭비했던 역사가 있다. 전국의 교회 안을 온통 황금으로 도배하다시피 했던 그 무절제한 소비의 끝은 참혹했다. 결국 20 세기 초, 국가는 재정 파탄에 이르렀고 더우기 브라질이라는 거대한 식민지를 잃자 나라 전체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이 국가적 위기의 틈을 타 살라자르라는 희대의 정치꾼이 등장했다. 그는 거대한 악마 같은 폭군이였다. 그는 국민들이 무식해야 다루기 쉽다는 해괴한 논리로 학교 수를 제한하여 우민화 정책을 펼쳤고, 도로, 교통, 병원, 상하수도 같은 필수 사회 기반 시설의 설치마저 제한했다. 오로지 십 여 가문만이 나라의 부를 독점하게 만들어 자신의 지배력이 공고히 작동하도록 만들었다. 40 여 년간 이어진 그의 독재는 포르투갈의 시계를 멈추게 했다.

포르투갈에서 느낀 또 하나의 강렬한 인상은 이 살라자르 덕택에 4, 50 대 이상의 중년층에게는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학교에 다녀야 했던 시대에는 독재자에 의해 외국어 교육이라는 것이 철저히 제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10대에서 30대 젊은 층과는 영어로 대화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았으니, 이 세대 간의 단절 또한 살라자르가 남긴 슬픈 유산이다.

살라자르가 죽고 나서야 포르투갈은 비로소 문을 열었고, 유럽연합(EU)의 재정 원조를 받아 상하수도, 학교, 도로 등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포르투갈의 고속도로와 지방 도로들이 비교적 새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이 나라의 근대화가 늦었음을 방증한다. 유럽에 있다고 모두가 선진국은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며, 우리가 그들을 무작정 부러워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오죽하였으면 그가 심장병으로 집무실 책상 앞에서 사망하였음에도 그의 졸개들은 그가 호령할 것이 두려워 사흘 동안이나 그의 시신을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도록 방치하였다고 한다. 리스본의 낡은 골목마다 배어 있는 묘한 슬픔과 '파두(Fado)'의 애절한 가락은 아마도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민초들의 한(恨)일지도 모른다.

차카란다가 부드러운 선율이라면, 브라질 실크 플로스 나무(Ceiba speciosa)는 웅장하고 거친 서사시와 같다. 스페인 남부 코스타 델 솔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처음 이 나무를 보았을 때, 나의 첫 마디는 경탄이 아닌 불평이었다.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런 괴물 같은 나무를 가로수로 심었던 말인가!"



통통하게 부어오른 듯한 밑둥은 촘촘하고 날카로운 가시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외부의 침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무장한 그 모습에 나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다. 그러나 밑둥만 보고 겁을 먹었던 나는 고개를 들어 그 꼭대기를 바라보는 순간, 나의 좁은 선입견을 무너뜨려야만 했다. 그 험악한 가시 줄기 끝에는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분홍과 흰색의 꽃들이 폭죽처럼 터져 있었기 때문이다.

의학을 공부하던 젊은 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인체가 상처를 입으면 그 자리에 단단한 흉터(Scar)가 남듯, 실크 플로스의 가시 또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생존의 흔적이었을 것이다. 척박한 환경에서 제 몸을 지키기 위해 저토록 날카로운 무기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다가왔다. 말려의 교향곡이 주는 거대한 압도감과 그 뒤에 숨겨진 서정적인 아리아처럼, 이 나무는 강렬한 도입부를 지나 결국 가장 부드러운 꽃을 피워내고 있었다.

이제 나의 일상은 이곳 남가주의 풍경 속에 깊이 뿌리내렸다. 6 월이면 집 근처 도로는 다시금 보랏빛 카펫으로 덮이고, 가을이면 실크 플로스의 분홍 꽃잎이 가시 돋친 줄기를 장식한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가시 돋친 실크 플로스 나무를 보고 무서워하며 뒷걸음질 치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나무 밑에 섰다.

아이들에게 그 나무가 피워낸 예쁜 꽃을 보여주며,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인생의 작은 진리를 이야기해주던 그 오후의 햇살을 기억하여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겉모습의 거칠음 속에 감춰진 내면의 아름다움,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나무도 결국 그토록 부드러운 꽃을 피워낼 수 있다는 사실이 아이들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랐다.

해 질 녘, 클레어몬트 브루어리의 야외 테라스에 앉아 'Jacaranda IPA' 한 잔을 앞에 둔다. 씹쌀한 홉의 풍미는 마치 실크 플로스의 가시 같고, 목을 타고 넘어가는 청량함은 자카란다의 향기 같다. 인생도 실크 플로스 나무처럼 때로는 날카로운 가시를 건뎌야 하지만, 결국 그 끝에는 찬란한 꽃을 피워내는 과정이 아닐까? 가시 돋친 줄기를 가졌든, 바닥을 어지럽히는 꽃잎을 가졌든, 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다. "정신 나간 놈들"이라 욕했던 그 가로수들이 이제는 나의 노년을 지탱하는 가장 깊은 철학적 동반자가 되었다.

80년을 넘게 살아온 지금의 나에게 나무는 가장 깊은 철학적 동반자다. 가시 돋친 인생을 묵묵히 버텨내며 찬란한 꽃을 피워내는 법을, 나는 오늘도 집 앞의 가로수들에게서 배운다. 인생은 때로 아프고 거칠지라도, 충분히 아름다울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